



수능 앞으로 100일 '모정불심' 수능 100일을 앞두고 조계사는 인선원 도선사 봉선사 홍국사 월정사 등 전국의 사찰은 8월 16일 일제히 대학입시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또 서울 봉은사는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입시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자세'라는 주제로 8월 21일과 9월 11일 입시특강을 개최한다. 사진은 8월 12일 서울 도선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발원기도를 올리는 불자들. 도선사=고영배 기자

10·27 법난 진상규명 나섰다

조계종 대책위 구성...위원장에 법타 스님

조계종이 10·27 법난 진상규명 공시 발표 후 6개월간 운영되는 법난대책위는 앞으로 △법난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 △불교계 명예회복 및 피해자 배상 추진 △법난에 대한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 정리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법 스님은 "법난 대책위는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은 물론 조사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마이산 천지탑 관리자는 탐사 주지”

대법원 진안군 패소 판결

문화재 관리권을 놓고 벌여진 사찰과 지자체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2부(대법관 배기원·유지담·이강국)는 진안군이 상고한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해명 석탑 '관리자 교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석탑은 탐사 주지가 관리하는 게 맞다"며 7월 29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마이산의 명물' 천지탑 관리자가 누구냐를 놓고 벌여졌던 관리자 교체 소

송은 탐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천지탑 분쟁'은 탐사와 진안군이 문화재관람료 배분약정을 체결한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지탑 중 일부가 군유지에 세워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탐사와 진안군은 문화재관람료를 7대3으로 배분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문제는 진안군이 배분비율을 5대5로 변경하자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탐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군유지 임대료로 문화재관람

료를 대신하라는 증재안을 받아냈고 이에 불복한 진안군은 천지탑 관리인을 군청으로 바꾸는 '마이산탐 관린인 변경안'을 2000년 6월 전라북도에 제출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이를 받아들여 탐사는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고법이 이를 받아들여진 진안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탐사는 이번 소송과 천지탑 소유자가 탐사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함으로써 마이산 천지탑 관리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변론을 맡은 이윤훈 변호사는 "이

“日 오판·망동 하지말라”
법장 스님, 광복절 담화

광복 6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8월 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장 스님은 담화문에서 "일본은 식민정착을 미화하는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고 군대의 외국파견을 합법화하려는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 종단과 2천만 불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오판과 망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국민 각 개인이 갖는 정신적 고민과 갈등, 공허감이 해소될 수 있는 문화, 복지의 전달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공사비 과다책정 논란

“사실 확인위해 법적 조치”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원가 계산과 다 어부지름을 밝히기 위해 기관 및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8월 12일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종도와 국민 여러분께 마음깊이 사과드립니다. 중단 집행부에서는 어제 발표된 대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임을 재차 약속드립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

관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장주, 이하 조사대책위는 11일 활동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김희욱 조사위원이 총무원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 업체 등의 자문을 받아 중앙박물관 내부공사 원가를 산정한 결과 32억 8000여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출됐다"며 "최초원가 69억 8000여만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근거가 돼야 할 설계서와 도면의 수준이 부실해 원가 계산을 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몇몇 감정기관으로부터 들었다며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만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현직 장관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권한대행 김의정, 이하 중신회)는 8월 2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불자 정부기관장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 추병직 견교부 장관, 이재용 환경부 장관, 변양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병준 청와대 불자회장, 이용희 국회 정각회장, 성윤갑 관세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신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은 "각자 위치에서 정진하고 있는 기관장님들을 초청해 상호 격려하기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종헌중법특위 소위원회 발족

선거제도 개선안 등 27개 법안 검토

조계종 선거제도 등 종헌중법 제·개정안을 검토할 소위원회가 발족했다. 조계종 종헌중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중원)는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중원, 정후, 학담, 지홍, 법경, 보경, 본각 스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남동우 기자

“北 사찰 복원 예정대로”
현대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낙마 위기에 처한 현대아산 김윤규 부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현대아산은 "현재 추진중인 금강산 사찰 복원 사업은 흔들림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아산의 관계자는 8월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부회장의 행보와는 별개로 금강산 관광과 성지 복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도 "큰 틀에서의 대북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 이사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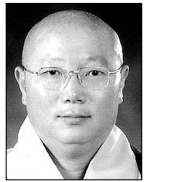
성파·현운 스님 복수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8월 10일 오후 2시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0차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후보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오는 11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 상임이사 영배 스님의 후임으로 前 통도사 주지 성파, 통도사 주지 현운 스님을 각각 추천했다. 이날 추천된 성파 현운 스님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중앙종회의 등의를 거쳐 동국대 이사회에서 1명을 선임 이사로 선출된다. 조유수 기자

마곡사 중앙종회의원

원경 스님 선출

공주 마곡사 중앙종회의원에 원경 스님(원안 성불사 주지)이 8월 8일 당선됐다. 원경 스님은 1988년 사미계, 91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마곡사 공주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했다. 남동우 기자



제 12 회 「선우논강」 법석에 초대합니다.

“大念處經의 心念處 · 法念處 修行과 話頭參究”

부처님께서 "자주 모여서 법에 대해 토론하라. 그러면 정법이 영원히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우논강은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자세로 한국불교의 수행, 교화,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을 탐마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과 불교의 대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각자의 터전에서 고민하는 출가자들이 매월 첫째 월요일 정기 공부모임과 년 2회 대중논강을 개최하오니 뜻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울러 제 12 회 선우논강 법석에 여러 대중스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불기 2549(2005)년 8월 29일(월) 오후 2시 - 오후 9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대념처경과 관해선」
- 대념처경의 심 · 법념처 수행과 화두참구
- 발 제 : 재연스님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 일 정 : 오후 2시 접수, 오후 3시 논강, 오후 6시 공양, 오후 7시 대중토론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준비 물 : 대가사, 참가비 3만원
- 문 의 : 진오스님 011-667-6092 /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도량 후원계좌 : 우계국 704296-02-018502 (예금주 : 장영기)

대한불교조계종 선우도량 공동대표 철오 · 현각 합장